

나주시 수도권 투자 유치 로드쇼 이어 '혁신특구' 포럼

서울 코엑스서 에너지 기업·기관 150여명 참석 큰 관심 차세대 전력 시스템 '중압 직류 배전' 주제 강연·토론

나주시가 글로벌 혁신 특구와 관련 수도권 투자 유치 로드쇼 행사와 중압직류 배전(MVDC) 포럼을 잇따라 개최하며 기업,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나주시는 수도권 투자유치 로드쇼 행사에 이어 지난 4일 서울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에서 에너지 관련 기관·기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에너지산업 글로벌혁신특구와 연계한 중압 직류 배전(MVDC)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한층 더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해 미래 기술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 실증, 인증, 국제 표준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나주시는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를 통해 특구로 선정됐으며 차세대 전력시스템 중 하나인 '직류기반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직류산업의 실증, 인증 등이 선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기술 표준을 마련해 국내 기자재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세계 시장을 선점한다는 포부다.

전남 에너지산업 글로벌 혁신특구는 총사업비 1002억원(국비 250억원·지방비 415억원·민간 337억원)이 투입된다.

미래 직류기반 전력망 상용화의 글로벌 거점 도약을 목표로 핵심지구와 연계지구로 나뉘어 단계별로 추진한다.

1단계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에너지 산·학·연이 집적화된 나주 혁신산단 일원에 직류기반 전력망 실증을 위한 상용시험장(테스트베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날 포럼은 문승일 한국에너지공과대 연구원장을 좌장으로 기조강연, 전문가 4인의 주제 발표와 문체주 에너지밸리산학융합원장, 김동욱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이 참여하는 6인 패널토론 등이 진행됐다.

중압직류 배전(MVDC)은 기존 발전소에서 전력변환소를 거쳐 수용가까지 AC(교류)로 송배전



지난 4일 서울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중압직류 배전(MVDC) 포럼' 참가자들이 행사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하던 것을 중간 전력변환소를 거치지 않고 DC(직류)로 변환해 송배전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급증으로 기존 교류(AC) 전력 계통망 포화, 계통정숙 지연, 출력제한 등의 문

제점과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 도심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 소비량 급증 추세를 해소해줄 핵심 산업으로 꼽히고 있다.

포럼 기조강연은 김병국 나주시 에너지육성팀장

의 '글로벌 혁신특구 취지 및 혜택', 이규성 서울대 교수의 'MVDC기술의 중요성과 국내 현황', 정홍주(주)효성 HVDC팀장의 'MVDC 컨버터스테이션 개발현황', 유도경 (주)그린이엔에스 대표의 'MVDC 산업과 전남 에너지기업의 준비', 김강식 한전 신기술연구소장의 'MVDC 사업화 추진현황' 순으로 진행됐다.

패널토론은 '차세대 전력망기술 MVDC'를 주제로 기술적 중요성과 국내 적용 효과, 컨버터스테이션 기술개발 등을 핵심 안건으로 다뤘다.

또 직류부하 증가 대응, 분산에너지 활성화,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MVDC 기술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과대 등 에너지 산·학·연·공 연계 발전방안도 논의됐으며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의 MVDC 관련 질의응답도 활발히 오고 갔다.

포럼에 참석한 나상인 나주시 미래전략산업국장은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으로 에너지밸리 기업들의 미래 전력 기술 분야의 기술·제품 개발 촉진과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구를 통해 나주시 세계적인 에너지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장흥군, 편백정유 활용 친환경 제품 생산 나섰다

대명소노시즌·지앤지와 업무협약

편백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내건 장흥군이 이를 활용한 친환경 제품 생산에 나섰다.

장흥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대명소노시즌, ㈜지앤지와 '편백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8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성 장흥군수, 정현철 ㈜대명소노시즌 상무이사, 강태구 ㈜지앤지 대표이사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협약을 맺은 장흥군과 기업들은 편백 정유를 활용한 친환경 제품의 생산·가공·판매에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제품생산 주원료인 편백 정유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서는 각 사가 가진 기반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편백 제품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공동 홍보와 관광·체험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협업하기로 했다.

㈜대명소노시즌은 독일산 고급 메모리폼 매트리스와 침구, 침대 베개 등 제품 외에 슬립 부츠(방한화), 담요 등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



김성(가운데) 장흥군수와 ㈜대명소노시즌, ㈜지앤지 관계자가 '편백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지앤지는 편백 관련 제품 제조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기업으로 알려졌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협약은 지속가능한 편백 산업 성장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화순 고인돌 축제 기간 '다육가드닝 전국대회'

오는 19일 개막하는 '2024 화순 고인돌 축제' 기간 '다육가드닝 전국대회'가 열린다.

화순군은 19일부터 28일까지 열흘간 봄꽃 축제 행사장에서 '2024년 다육가드닝 전국대회'가 열려 다양한 다육 식물을 감상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이 대회는 화순군이 주최·주관하고 화순다육연합회가 후원한다.

많은 다육 애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40개 팀이 오는 19일 2차 현장 심사를 받는다.

참가자들은 가로 1.5m, 세로 0.9m 크기의 전시대에 직접 키운 작품을 전시한다.

심사위원들은 수형과 색깔, 화분과 어울림, 실내 장식 소품 활용도, 감각적 표현도 등을 평가할



지난해 다육가드닝 전국대회 최우수상에 선정된 다육 작품. <화순군 제공>

예정이다.

화순군은 다육 식물 전시 외에도 관람객의 정서·심리 건강을 찾는 치유농업 체험도 마련했다.

다육 식물을 2만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화순군 지리지 표지 농산물 '작약'으로 만든 차량용 향 주머니를 증정한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함평군 '청춘마을 그린리더'로 일자리 만들고 환경 지켜요

노인일자리 시장형 신규 사업 폐현수막 가방 등 제품 제작

함평군 노인복지관이 고령 주민의 친환경 일자리를 지원하는 '청춘마을 그린리더' 사업을 펼친다.

'청춘마을 그린리더' 사업은 2024년 노인일자리·사회활동지원사업 시장형 신규 사업단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은 고령자에게 적합한 업종 가운데 소규모 매장·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사업은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다.

13명의 고령 주민이 '그린리더'로 참여해 폐현수막 가방과 양말목 냄비받침, 손뜨개 수세미 등 친환경 제품을 제작·판매한다.

오는 26일 개막하는 26회 함평나비대축제 기간에는 지역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손수 제작



함평군 '청춘마을 그린리더'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폐현수막으로 만든 가방을 선보이고 있다.

한 친환경 제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김윤하 함평군 노인복지관 관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전 지구적 기후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며 "재활용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며 탄소중립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국립장성숲체원 식목일 기념 민·관 협업 나무 200그루 심어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장성숲체원은 지난 5일 국립장성숲체원 산림교육센터 일대에서 식목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ESG 경영의 일환으로 방문객에게 쾌적한 산림복지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고 나무 심기 활동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마련됐다.

식목 활동에는 정종근 국립장성숲체원장을 포함한 20여명의 직원과 하동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 및 이용인 20여명이 함께했다.

식재한 수목은 서부지방산림청에서 지원받은



산딸나무 약 200주다. 산딸나무는 산딸기 모양의 열매를 맺는 새들이 좋아하는 수종이다.

정종근 국립장성숲체원장은 "숲체원은 오늘 심은 나무와 함께 성장하며, 국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담양호 관광지 노후시설 정비·개선 나선다

전남도 노후관광지 재생사업 선정

담양호 국민관광지가 '2024년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에 선정됐다.

담양군은 담양호 국민관광지가 전남도에서 공모한 '2024년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에 선정돼 남은 기존 시설의 정비와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4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은 전남도 내 관광지 27개소, 관광특구 2개소 총 29개소 중 3곳을 선정해 노후 관광시설과 프로그램을 보완·재생하는 공모사업이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담양호 국민관광지(추월산지구)'는 1977년에 국민관광지로 지정돼 47년

이 지난 노후 관광지, 매년 추월산과 담양호 용마루길을 중심으로 약 40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담양군은 이번 선정을 통해 오래된 화장실과 주차장을 개·보수하고, 야간 불거리를 추가해 추월산 지구에 건립 예정인 국제명상센터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한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공모사업 확정에 따라 담양의 대표 관광명소인 담양호 관광지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군민을 비롯한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이 힐링하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화순경찰 유명무실 모범운전자회 재결성 발대식

화순경찰은 지난 5일 화순경찰서 적벽마루에서 모범운전자회를 재결성하고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박용경 참서장과 모범운전자회 회원, 신규 모집된 회원 등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화순경찰서 모범운전자회는 지난 10년간 활동이 전혀 없었고, 각종 행사 교통관리와 리를 위한 인원부족으로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박용경 화순서장은 모범운전자회 기존 회원 유지와 신규 회원 모집에 나섰으며, 지난 3월 모범운전자회 활동 관련 조례 제정 등 절차를 마무리하고 발대식을 갖게 된 것이다.



발대식에 참여한 박용경 화순경찰서장은 "10년간 유명무실화 됐던 모범운전자회의 재결성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표한다"며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화순군을 만들기 위한 교통안전활동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